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의 행복은 열반과 깨달음

초기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길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사)

백양사 야단법석 이틀째인 11월 22일 오전.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사)은 '초기불교를 통한 깨달음의 길'을 주제로 열정적인 법문을 펼쳤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에서 설하는 깨달음의 핵심 '해체해서 보기'"라고 주장했다. 각묵 스님은 "초기불전에서 나타나는 수행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신, 수, 심, 법)로 해체해서 그 중의 하나에 집중(삼매, 사마타)하거나 그 중의 하나의 무상, 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것(통찰, 위빠사나)"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설법과 질의 응답 요지.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즉,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초기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셨다. 그것을 간추려 보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구경의 행복이 된다. 이 가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행복은 열반이요 깨달음이다.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은 세상의 어떤 가치체계나 신념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제시하는 고귀한 가르침이다.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존재'(名言)를 해체해서 법으로 환원해서 보아야 하는데, 초기불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5蘊), 처(12處), 계(18界)의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에 대한 철견, 사성제의 통찰, 팔정도의 완성, 12연기의 역관(逆觀) 등으로 말씀하셨다. 초기불전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바르게 추구하는 방법은 37보리분법이며, 이것은 팔정도로 귀결이 된다.

이처럼 초기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열반의 실현이요 깨달음의 성취이다. 이 둘은 "염오,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염오경)이라는 문맥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열반야말로 불교의 진리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 가운데 세 번째인 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苦滅聖諦)'이며 사성제를 철견하는 것이 바른 깨달음이다. 따라서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요, 그 궁극적 행복은 바로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경지요, 이러한 것을 철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은 어떻게 해서 실현되는가? 깨달음은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실현된다.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나타나는 수행은 팔정도를 근간으로 하는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37보리분법, 37조도품)'로 정리된다. 그러나 팔정도를 위시한 37보리분법만 닦으면 깨달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세상과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緣起)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온(五蘊)'이라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몸뚱이, 色), 느낌(受), 인식(想), 심리현상들(行), 알음알이(識)의 다섯 가지 무더기(蘊)의 적집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로 말씀하셨다. 나와 세상은 조건발생이요, 여러 조건(緣)들이 얽히고 설켜 많은 종류의 괴로움을 일으킨다. 이러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구명하여 그 괴로움을 없애야 저 깨달음과 해탈, 열반은 실현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나와 세상에서 진행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철저하게 밝히시는데,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다. 나와 세상과 여기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대한 연기적 관찰은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체계화 되는데, 그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고 한다. 이처럼 교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37보리분법의 수행이 있어야 깨달음은 실현되는 것이다. <상윳따 니까야>를 위시한 니까야에서는 깨달음의 실현이 ① 무상, 고, 무아의 통찰과 염오-이욕-해탈-구경해탈지를 통해서 ② 연기의 이욕(탐욕의 빛바램)-소멸을 통해서 ③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④팔정도의 실현을 통해서 ⑤37보리분법을 닦아서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초기불전에서는 불교의 인간관인 오온과 세계관인 12처의 무상, 고, 무아를 통한 염오-이욕-해탈-구경해탈지를 설하고 있고, 연기관인 12연기의 이욕-소멸도 역설하고 있으며, 진리관인 사성제를 관통할 것도 역설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행실천관이요 중도인 팔정도와 37보리분법의 실천을 통한 깨달음의 실현도 강조하고 있다.

초기불전에서 설하는 깨달음의 핵심을 한 마디로 말해보라면 주저 없이 '해체해서 보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인 왕기사 존자는 <상윳따 니까야>에서 부처님을 "부분들을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서는 "마음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분석과 해체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념의 해체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명칭이나 말 즉, 개념에 속게 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의 도처에서 강조하신다.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석해서 보고, 세계는 18계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 처, 계, 연 등으로 설해지는 모든 존재들의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이나 고, 무아를 통찰함으로 해서 염오하고 탐욕이 빛바래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경전 도처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념적 존재나 명칭, 말에 속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단지 오온이고 12처이고 18계이고 조건발생(연기)일 뿐임에 사무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 처, 계, 연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디가 니까야> <대념처경> 등 초기불전에서 나타나는 수행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심리현상들(신, 수, 심, 법)로 해체해서 그 중의 하나에 집중(삼매, 사마타)하거나 그 중의 하나의 무상, 고, 무아를 해체해서 보는 것(통찰, 위빠사나)이다.

나와 존재와 세상과 생사문제를 온, 처, 계, 연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염오-이욕-소멸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어느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각묵 스님.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 즉 '이고득락' 이다

모든 존재 온·처·계·연으로 해체하는 것이 수행

질의응답

토론자(사미) :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색수상행식(오온)이라고 답하셨다. 느낌이 반복되어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형성해서 '나'라는 것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기억'을 어떻게 보는가.

각묵 스님 : 초기불교에서는 기억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기억도 행위의 일종이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하나의 심리현상으로 환원할 수 있다. 구사론에서는 영(靈)을 '기억'으로 해석하지만, 초기불교에서는 '마음챙김(사띠)'으로 번역한다. 기억 보다는 현재의 마음챙김이 중요하다.

토론자(우바새) : 윤회는 불교 고유의 교리인가, 인도 전통에서 유래한 것인가.

각묵 스님 : 삼사라(윤회)는 인도의 6파철학 등 모든 종교나 사상에서도 인정한다. 다만 윤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힌두교는 '자아의 윤회'를, 불교는 '무아의 윤회'를 주장한다. 그런데, '무아'인데 왜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이는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오온이 '찰나생 찰나멸' 하며 상속(거듭되며 흘러감)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금생의 마지막 마음, 즉 '죽음의 마음(死心)'이 다음 생의 최초 마음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재생연결식이 여러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생의 흐름을 받아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아라한이 되어 반열반(般涅槃)에 들면, 윤회의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 부처님은 '반열반'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다.

토론자(사미) :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불(見性成佛)해야 깨닫는다고 말한다. 초기불교에서는 '견성'을 어떻게 보는가.

각묵 스님 : 견성은 무아성(無我性), 무상성(無常性), 고성(苦性)을 깨닫는 것이라 이해하고 싶다. 즉 무상, 고, 무아란 '삼법인'의 근본성질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토론자(비구) : 선종과 화엄, 법화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은 연생(緣生) 연멸(緣滅)이 다 알아진 상태라고 본다. 이를 일러 굳이 '일심'이니 '자성청정심'이라 한 것이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연기법과 삼법인(무상, 고, 무아)을 깨달은 상태로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차별이 없다.

토론자(우바새) : 초기불교에서는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각묵 스님 : 초기경에도 천상에 대한 법문이 많이 나온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각각 천상이 있다고 본다. 욕계 천상은 보시와 지계를 잘 지키면 태어날 수 있다. 색계 천상은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삼매(선정)를 닦아야 갈 수 있다. 특히 정거천은 삼매를 닦아 불환과(不還果: 아나함과) 이상을 얻은 성자만이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가려면 죽기 전에 염불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이 대단해야 하기 때문에 색계 4선천, 또는 정거천을 극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토론자(우바이) : 화두 참선 중인 불자다. 8정도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각묵 스님 : 정견(바른 견해), 정사유(바른 사유), 정어(바른 말), 정업(바른 업), 정명(바른 직업), 정정진(바른 정진), 정념(바른 마음챙김), 정정(바른 삼매) 가운데 정념이 본격적인 수행에 해당된다. 정념은 수행의 대상에 대해 바른 마음챙김을 함으로써 선법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수행의 대상은 신수심법(身受心法)의 사념처이든, 화두이든, 염불이든 무관하다. 화두 참구는 화두에 대한 마음챙김으로 볼 수 있다. 화두 챙김을 하되 바른 견해를 갖추고 팔정도를 함께 닦아야 함은 물론이다. 화두 참구만 바르게 하면 팔정도는 저절로 닦게 된다.

글=김성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 (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